

광주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미래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거듭난다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최종 선정 2028년까지 국비 등 1560억 투입 점검·정비·폐차·매매 기반 조성

낡고 노후한 광주 남구 송암산단이 전국 유일의 문화·디지털 기반 '미래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거듭난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선 신차 판매를 제외하고, 점검·정비부터 튜닝, 중고 매매, 폐차 등 이른바 자동차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송암산단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지역특화 재생 등 도시재생 사업지 20곳 가운데 '혁신 지구' 분야는 전국에서 광주 남구 (송암산단)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송암산단이 '도시재생 혁신

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국토부 컨설팅,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실현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보완했으며, 전국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에 산업, 상업, 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2020년 선정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함께 2곳 이상을 추진하는 유일한 지자체에도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1983년 준공해 남아있는 송암산단 유휴 부지에 2028년까지 국비 250억원 등 1560억원을 투입해 문화·디지털 기반 미래 차 애프터마켓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에 따른 효과는 신규 고용 1567명, 생산 3512억원, 부가가치 1290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전장 정비 인력 양성 및 물류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한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 실감 콘텐츠와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한 첨단 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산단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105호)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150명 이상 정비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산단 매출과 거주 인구를 10% 이상 증가, 콘텐츠 테마파크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을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 부품 생산거점인 빛그린산단·미래차 국가산단 등과 미래차 생산 이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송암산단 애프터마켓이 연결되면 지역의 미래가 걸린 미래차 생산부터 폐차까지 모빌리티 생애 전 주기를 특화하는 '전장 기반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 사업 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송암산단을 미래차 생산 이후 전 과정을 특화하는 전국 유일의 문화·디지털 기반 모빌리티 애프터마켓으로 조성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산업 매출 증대 등 산단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서구 '1004돌봄 서포터즈단' 발대

광주 서구는 지난 15일 광천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주민 및 광천초등학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1004돌봄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현배 기자 choi@

강기정 시장,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지원 요청

광주시가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19일로 예정된 법안 심사소위원회와 특별법 연내 제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

회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실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다시 한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내륙철도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현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

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지난 5일 첫 관문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예정돼 있다. 소위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까지 긴박한 일정을 모두 넘어서야 한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반대위원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소 럼피스킨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접종 4주 백신 항체 형성 판단

전남도가 지난 15일 신안과 무안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는 긴급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모든 소 농장 657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데 따른 방역 조치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 28일 신안, 31일 무안 한우농장에서 2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10월 29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재난 부서, 보건부서와 해충구제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했다.

전남지역 모든 소 67만3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정부 계획보다 5일 빠른 11월 5일까지 마쳤다. 럼피스킨 주요 전파 요인인 해충방제, 발생 사·도의 소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잠정 폐쇄 등 방역을 강화했다.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위해 긴급방역비 9억원, 소독약품 39t, 해충방제약품 18t을 지원해 매일 집중소독 등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남도는 중국 등 발생지역에 인접한 서해안에 위치, 전국 한·육우 사육 규모 2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 9개 시·도에서 107건이 발생하는 동안 총 2건에 그치며 조기 안정화를 달성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만·관이 온 힘을 모아 차단방역을 추진해 럼피스킨을 조기 종식하게 됐다"며 "농장에선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임상 예찰, 소독 및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무안 도시재생사업 국비 150억 확보

청계면 '지역+대학 상생 플랫폼'

삶의 질 개선·청년 일자리 창출

무안군 청계면에 자리한 국립 목포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골목상권의 매력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목포대학생들의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재생 지역특화

재생 분야로, 무안 청계면의 '지역+대학 상생 플랫폼 스퀘어(청계도림)'이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원과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1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52억원, 군 연계 사업비 10억원으로 총 312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에 5곳에 대해 후보지 선정평가를 실시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 검증과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무안군을 선정해 국

교부수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국비 지원의 타당성 검증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무안군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특화된 고유자산과 대학자원을 활용한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지원,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지역민과 대학,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며 "신규 선정된 곳과 진행 중인 44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전남에서 21개 시·군 52곳이 선정됐다. 올해까지 8곳을 완료하고, 44곳에서 약 9600억원을 투입해 정주환경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수탁기관 공모

광주시, 내년 800여명에 기회 제공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운영할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7년 동안 6300여 명의 지역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77억원을 투입해 800명 이상의 광주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내년부터는 6개 기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단일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 관리와 운영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까지 2년이다.

위탁을 받은 기관은 참여 사업장·참여자 모집

및 일경험 매칭 선발, 사업참여자 인건비 지급·관리,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 네트워킹활동 기획·운영 등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광주지역에 있고,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의 취업 지원·인력 양성·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사업 위탁 운영 실적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참가 신청서는 오는 27~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청년정책관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운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